산청군 참봉공파종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權載賢씨 선출

▲종회를마친참봉공종회임원들

▲신임권재현회장

3월 10일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 있는 완계서원浣溪書院에서 복야공파 참봉공종회參奉公宗會의 제3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참봉공파는 후손이 5천여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참봉공은 휘가 시준時準이고 시조의 20세손으로서 10세대파조 복야공僕射公 휘 수홍守洪의 10대손이고 7대조가 문탄공文坦公 일재一齋 휘 한공漢功, 5대조가 종정공宗正公 휘 사종嗣宗이며 고조가 감정공監正公 휘 집덕執德이다. 증조는 양산군사梁山郡事 휘 촌忖, 조는 사용공司勇公 휘 계우繼祐, 고考는 진사進士 전옥서봉사典獄署奉事로서 봉사공으로 불리는 휘 금석金錫이다. 참봉공은이러한봉사공의 4남3녀 가운데 한 아들로 산청에서 태어나 서울에 가서 유학遊學하였으며 중종반정中宗反正의 정국공신靖國功臣 책록시에 그 원종공신原從功臣의 훈을 받고 음사蔭仕로 나가 영경전 참봉永慶殿參奉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유행儒行으로 서울의 교유계交遊界에서 이름이 나 장차 대성大成할 인물로 꼽혔으나 별좌別坐 운運과 참봉 연連 두 어린 아들을 두고 일찍 별세하였다. 묘소는산청군생비량면 제보리 관동冠洞에 유좌酉坐로합폄되어있다.

이러한 참봉공의 후손은 4개파로 갈라져 번창하였다. 그 맏집으로서 참봉공의 현손玄孫이 되는 학행學行 참봉 휘 극량克亮의 동산공계東山公系, 다음이 중방仲房으로서 참봉공의 증손이 되는 대사간大司諫 충강공忠康公 휘 도濤의 동계공계東溪公系, 다음이 장령掌令 휘 집漵의 묵옹공계默翁公系, 다음이 묵옹공의 아우로서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이른 휘 준濬의 상암공계霜嵓公系이다. 이밖에도자손이 번창하지 못했으나 참봉공의 손자 휘 세륜世倫의 선원공계仙原公系와 참봉공의 차남 휘 연계連系가있다.

참봉공파종은 기왕에 위와 같은 4개지파가 각기 소종중을 이루고 있으면서 파보派譜도 별도 편찬 · 발행하고, 참봉공의 향사 때 이외에는 어떤 모임을 갖거나 결합체를 이룬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2년 전 2005년에 이 4개지파가 한 구심점으로 단합하여 숭조돈종崇祖敦宗의 업을 도모키로 하여 종회를 발기 창립하고 권도희權都熙씨가 그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종회는 참봉공의 증손 충강공을 제향하는 완계서원浣溪書院에서 열고 있다. 2006년의 참봉공종회 첫 사업으로는 4개지파의 기존 족보를 가감없이 그대로 합책하여 3권 1질로 발간했는데, 이는 앞으로 참봉공 후손은 파보를 편간할 때 반드시 합보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으며 운영위원 9인도 선임, 위촉하였다. 새 회장에는 진주에 거주하는 시조후 34세 권재현權載賢씨가 선출되었는데 주요 임원 명단은 다음과같다.

수석고문 : 권도희權都熙[전 임회장 · 33世]

회장: 권재현權載賢[34世]

부회장 : 권진혁權珍赫[36世] · 권정현權井鉉[35世] · 권덕상權悳相[37世]

감사 : 권재형權載炯[전임 간사 · 34世] · 권영복權永福[36世] · 권주석權周錫[35世]

<사진및보도자료權載炯>

8면에서계속

건립하였다고 한다. 거대한 바위산 모양의 이 사원은 앙코르와트의 유적중 유일하게 우물을 갖추고 있었다. 사원탑에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한 자야바르만 7세의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부처와 동일시된 왕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회랑의 벽면에는 그 당시 크메르인들의 역사적 사건과 일상생활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다.

반디스레이 사원은 붉은 색 사암으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곳으로 앙코르톰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자야바르만 5세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쉬바에게 바친 것이라고 한다. 앙코르에서 복원 작업을 한 프랑스 건축가들은 이 사원을 보석에 비유하며 크메르 예술의 극치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앙코르 사원보다 건축술이 뛰어나고 장식이 인도문화의 양식에 매우 가깝다. 조각 기법은 붉은 색의 단단한 사암을 이용하여 자단목에 목각을 하듯이 정교한 기술을 뽐내고 있었으며 탑부분에 조각된 여신상의 모습이 동양의 비너스라 불릴 정도로 완벽한 형태였다. 앙코르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며 양각의 깊이가 가장 길어서 거의 소조에 가까운 부조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캄보디아는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앙코르와트의 중앙탑을 본따 독립기념탑을 만들었으며 갈색빛이 나는 이 기념탑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이 독립기념탑이 있는 곳에는 많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녁 시간이면 마땅한 휴식처가 없는 프놈펜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밤에 조명을 밝히면 아주 멋진 탑이 된다고 한다.

프놈펜의 비경이라는 일몰은 일기가 고르지 못해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지 못해 아쉬웠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서 한식을 들며 여독을 풀었다.

가이드를 따라 숨가쁘게 구경하느라 놓친 부분이 많았지만 모든 벽면에 당시 행사과정 등을 조각한 부조와 석조 조각 건축의 아름다움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고, 이러한 석물石物을 어디서 들여다 건축을 하였는지가 궁금하였다.

능동칼럼

군자불기君子不器

權 在 琮
상근편집위원

정년퇴임하고 새로 얻은 직장까지 가는 전철 안은 나의 도서관이다. 붐비는 출근시간을 피해서 9시 반쯤 전철을 타고 일부러 멀리 빙 돌아간다. 경로석이 있지만 이 시간대는 자리가 여유로와 책읽기에 제격이다. 그동안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을 딴에는 무차별로 읽는다.

요즘은 톨스토이 단편에 푹 빠졌다. 옛날에 읽을 때와는 그 맛이 또 다르다. 어떤 것은 처음 읽는 기분이다. 어제 읽은 단편 중에서 ' 바보 이반 ' 이 주는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굵은 선으로 다가온다. 이야기인즉 옛날 어느 부유한 농부가 아들 3남1녀를 두었으니 군인 ' 세몬 ', 배불뚝이 ' 타라스 ', 바보 ' 이반 ' 과 귀먹은 벙어리 딸 ' 마리나 '이다. 장남 세몬은 군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귀족의 딸과 결혼하고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부인의 사치와 낭비로 언제나 적자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3분의 1의 땅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는 ' 너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벌어들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땅을 3분의 1이나 달란 말이냐? 그러면 저 가련한 이반과 네 누이동생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 하며 거절한다. 그러나 장남 세몬은 ' 이반은 바보고 마리나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며 그들에게는 재산이 무용임을 주장한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이반의 얘기를 듣기로 했다. 의외로 이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주라는 것이 아닌가.

이 소식을 들은 둘째 배불뚝이 타라스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 상인의 딸과 결혼하였고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에게도 얼마의 땅을 줄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는 장남과 같은 논리로 거절했고 둘째 타라스도 장남과 같은 논리로 바보 이반에게는 시집올 사람도 없고 벙어리 누이는 더더구나 재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다. 아버지는 또 이반의 얘기를 듣기로 했고 이반은 또 아무렇잖게 형이 좋을 대로 하라고 대답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 단편에서는 이반과 같은 동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화합하는 것을 시기하는 도깨비가 그들의 화합을 저주하게 된다.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두 형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 바보 이반을 마음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반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사고와 행동으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는 감동의 경지로 이끈다. 나아가 우리가 가야할 행로行路에 지표指標를 제시한다.

바보 이반은 우리 생각으로는 자잘못을 따지고 인과응보적 논리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일을 형을 위해서 아주 쉽게 결정한다.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일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반은 줄곧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모시고 벙어리 누이동생과 함께 일하며 열심히 산다. 이와 같은 ' 바보 이반 '의 삶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세속의 잣대로는 똑똑하고 영리한 두 형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삶을 관조해보면 사실 바보 이반 '은 군자君子다.

논어論語에서 ' 군자는 불기不器 '라 하고, 성서에서는 ' 마음이 가난한 자 '라고 했다, 그리고 불경에서는 '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이라한 것이 이에 해당할 것 같다.

이쯤에서 오늘의 세태를 돌아보자.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해 이혼하여 살다 자식이거리적거리고 귀찮다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병든 노부모를 유기하며 부모가 용돈을 안준다고 다 큰 자식이 상습으로 구타하는 일이 신문에 비일비재로 보도된다. 급기야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게 되고 감옥에 간 자식이 출옥할 즈음엔 부모는 또다시 다가올 구타를 염려해서 초조와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낸다는 이야기도 충격적이다. 동생집에 부모의봉양을 맡기고 위중하여 죽을 때가 되면 부의금 생각에 장자 내외가 와서 명이 다한 부모를 빼앗아 가는 사태도 한심한 노릇이다.

우리 안동권문의 종사도 여러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모두 자기자리로 찾아가는 게 어떨까. 제자리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작금의 사태는 남의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용기있게 말해보자.

' 인간에 있어 최고의 지혜는 자기 죄를 발견해 내는 분별력에 있고 최고의 미덕은 그 죄를 뉘우치는 데 있으며 최고의 용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해 보자. 새로이 권문을 지도하는 분은 분별력과 뉘우침을 가지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이고 또 ' 이반 '처럼 모두를 아우르는 군자다운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